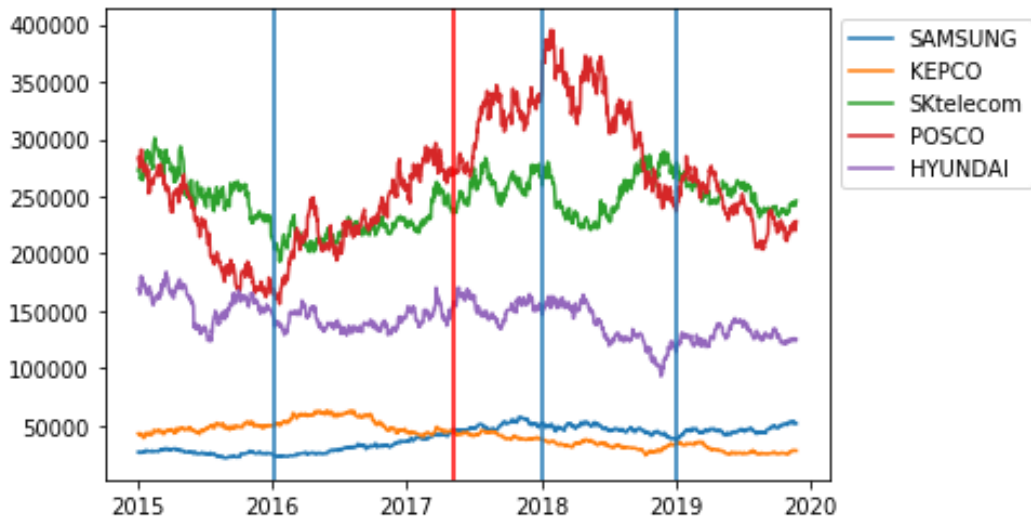


전공을 활용한 주가 흐름 분석(문재인 정부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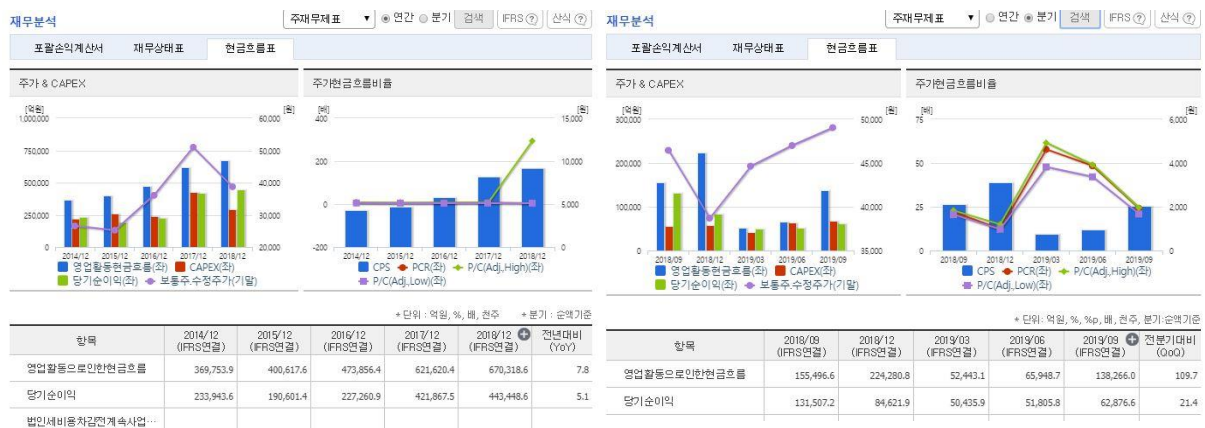
20181111 박초연



위에 그래프는 수업 때 그린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 삼성과 SK의 주가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얼마나 더 상승하였는지 자세히 알기 위해 구글에 각 회사의 주식을 검색하여 2017년 5월 10일부터 2019년 11월 25일까지의 주식 변화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아래와 같고, 이는 앞에서 수업시간에 그린 그래프의 결과와 같다.
<삼성전자 13.92% 상승, 한국전력 36.65% 하락, SK 텔레콤 3.81% 상승, POSCO 14.5% 하락, 현대차 20.32%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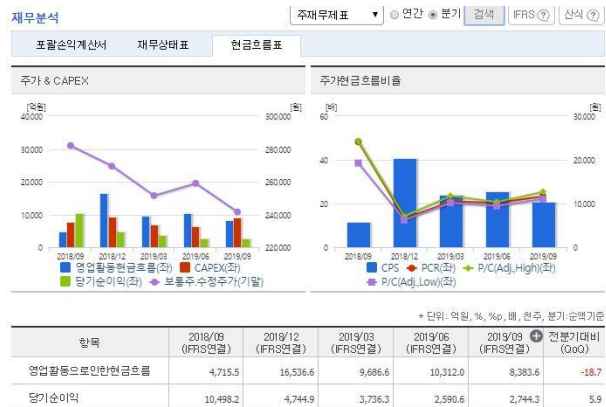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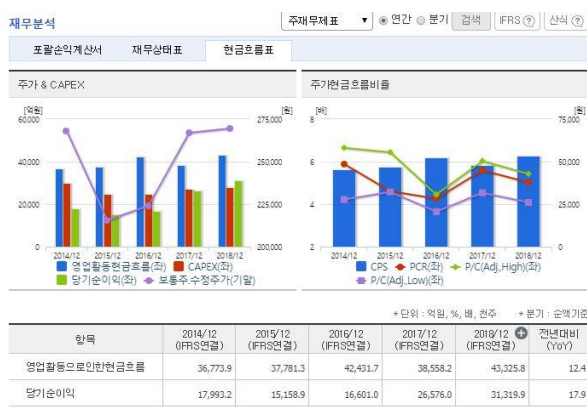
이를 토대로 전공(산업경영공학과) 수업인 경제성 공학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5개의 기업 중 주가가 상승한 두 기업의 현금흐름도를 살펴봤다. 또한, 변화가 일어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삼성전자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보면, 주가의 변화를 보면 2018 년말(2019 년초)이 2017 년말(2018 년초)에 비해 하락했지만 이전 대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년대비 5.1%의 당기순이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삼성전자는 2018 년 반도체 수요부진과 재고상승으로 인해 가격하락이 있었으며, 계열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그룹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져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왼쪽 그림의 2019 년 분기별 현금흐름표를 보면, 다시 주가가 상승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본 불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반도체 부품 국산화가 이루어졌으며, 신제품 개발로 인해 다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예상된다.

SK 텔레콤



오른쪽의 연간 현금흐름도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7 년과 2018 년 말에 전년대비 17.9%로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왼쪽의 분기별로 보면, 2018 년부터 하락세에 있다. 사실상 국내 통신사업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즉,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야 할 때이다. 이에 더불어 정부에서의 통신료 인하 압박으로 더 난항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G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데이터 허브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이 이어지고 있어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결과를 보아 문재인 정부 이후,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은 삼성전자였으며,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기 보다는 자사의 노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finance.naver.com/> (주가 현금흐름도),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9/747082/> (삼성 성장)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9/11/936877/> (SK 텔레콤)

<https://www.ebn.co.kr/news/view/898963> (SKT 데이터허브 활용)